



연금상품 가입유도를 위한 정책사례

김동겸 선임연구원

노후준비와 관련한 대중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 배치되는 비합리적 현상이 종종 목격됨. 이에 주요국 정책담당자는 개인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태경제학 이론을 적용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금시장에서의 소비자참여 확대를 위한 노후대비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캠페인 시행, 자동가입제도, 기여율 자동증가제도, IT기술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보고 있으나, 노후준비 관련 실제 의사결정을 보면 이와 상반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함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근로자 중 대다수가 노후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저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의 비중은 소수에 불과함¹⁾
 - 미국계리사협회(SOA)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이전세대의 38% 정도만이 은퇴계획을 수립함²⁾
- 은퇴 직전세대인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본인의 향후 소득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은퇴예상시기와 실제 은퇴시기와도 차이가 존재함³⁾

■ 이에 주요국 정책담당자는 행태경제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연금시장에서의 소비자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함⁴⁾

- 행태경제이론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원인을 규명함

1) Lusardi&Mitchell(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50대 이상 성인의 1/3만이 은퇴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사람의 비중은 이중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Society of Actuaries(2016), 2015 Risks and Process of Retirement Survey

3) GAO(2015), Retirement Security: Most Households Approaching Retirement Have Low Savings

4) Pensions Policy Institute(2017), Consumer Engagement: Lessons from Overseas

- 행태경제학 이론에서는 은퇴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비합리적 행동 원인이 현재 편향적 태도(Present Bias), 미루기(Procrastination), 변화에 대한 거부(Inertia) 등에서 비롯된다고 봄⁵⁾

■ 첫째,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노후대비 관련 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함

- 네덜란드에서는 개인들의 연금상품 가입현황, 연금자산 축적액, 은퇴준비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Pension3Days 행사를 매년 10월 중 3일 동안 개최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연금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시행함⁶⁾

■ 둘째,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고 은퇴자산 축적을 높이기 위해 자동가입(Auto-Enrolment)이나 기여율 자동증가(Auto-Escalation) 제도 등을 시행함

- 자동가입제도는 근로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되는 방식으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제도 도입 후 연금가입률이 크게 개선됨⁷⁾
 - 영국 퇴직연금제도(NEST)는 2012년 10월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가입률(2012년 기준 47%)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기준 66%에 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KiwiSaver 제도의 경우도 제도가입률이 2007년 15.2%에서 2013년 65.4%로 큰 폭으로 증가함⁸⁾
- 기여율 자동증가제도는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면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도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한 제도로,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동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함
 - 미국에서는 근로자가 급여인상에 따라 기여율이 높아지는 옵션(Save More Tomorrow, SMarT) 채택 후 평균 납입액은 소득의 3.5%에서 13.6%로 증가됨⁹⁾

■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에 있어서 자신감 부여, 장기재무계획 지원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Pension Dashboards 등을 활용함¹⁰⁾

5) Pensions Policy Institute(2017), Consumer Engagement: Barriers and Biases

6) Lusardi(2003) 금융교육은 특히 저소득층, 저학력 가구의 자산 증식에 일조하고 있으며, 은퇴교육 세미나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전 가구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함

7)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재 중시(hyperbolic discounting) 선호체계하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자동가입방식이 디폴트로 설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지 않는데 기인함

8) 이탈리아의 경우도 자동가입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 가입률이 2007년과 2013년 사이 7.5% pt. 증가함

9) Richard Thaler, and Benartzi, Shlomo(2004), Save More Tomorrow: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 ORC(2017), Improving Engagement in Life and Pensions, Innovation Monitor Report

- 미국과 호주는 Retiree Income, AustralianSuper Mobile Application 등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은퇴계좌 자산 및 거래내역 조회,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자산인출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영국의 연금사업자인 Aegon 社와 Aviva 社는 Retiready, Shape My Futur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퇴준비 현황, 개인의 생활습관에 따른 은퇴 이후 소요자금 예측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은퇴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호주(국세청 Portal), 스웨덴(Min Pension), 네덜란드(National Pension Register), 덴마크(PensinosInfo) 등은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개인의 공사연금 가입현황, 향후 수령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Pension Dashboard를 운영함

〈표 1〉 연금시장에서 소비자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국 정책

연령	국가	주요 사례
은퇴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네덜란드	○ Pension3Days
	영국	○ Pension Awareness Day(2014), Pension Wise Campaign(2015)
	기타 유럽 주요국	○ 루마니아: Learn to Choose! Private Pension, A Young Decision(2010~12) - 청년층 대상 사적연금제도 이해도 제고 캠페인 ○ 크로아티아: 저소득, 저학력자 대상 공공캠페인 시행(2017), 제도도입 설명회 ○ 체코: 정부 및 민간기관 공동으로 연금이해도 캠페인 시행(2013)
자동가입	칠레	○ 자영업자 대상, 매년 소득세 신고 전까지 탈퇴 가능
	이탈리아	○ 근로자 전체,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퇴 가능, 기여율: 임금 6.9%(고용주)
	뉴질랜드	○ 신규 근로자 대상, 가입 후 2~8주 이내 탈퇴 가능, 기여율: 근로자, 고용주 각 3%
	영국	○ 근로자 전체, 가입 후 1개월 이내 탈퇴 가능, 기여율: 고용주(2%), 근로자(3%)
	미국	○ 근로자 전체, 가입 후 90일 이내 탈퇴 가능
IT기술 (어플리케이션, Dashboard)	미국	○ Retirement Income: 은퇴자산 적립단계
	호주	○ AustralianSuper Mobile App: 자산적립 및 인출단계
	인도	○ Defence Pension Info: 전역군인 대상
	영국	○ Aegon: Retiready, Aviva: Shape My Future

■ 연금시장에서의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경우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노후생활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kiqi**